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및 가족기능 차이

변은주[‡] 김홍석[‡]*

부산대학교

본 연구는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및 가족기능에서의 차이를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초등학생 218명(다문화 아동 103명, 한국인부모 아동 115명)을 표집 하였으며, t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내적 통제소재가 낮게 나타났으며, 외적 통제소재에서는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중 가족지지에서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셋째, 가족기능에서는 응집성과 유연성 모두에서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문화 아동에게 있어서 가족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함을 제시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임상적 의미와 연구의 제한점이 논의 되었다.

* 주요어 : 다문화 아동, 내외 통제 소재,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

‡ 주저자 : 변은주, 부산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상담부 전임상담원, seopyun@hanmail.net

‡‡ 교신저자 : 김홍석,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강사, jesusun@hanmail.net

서론

국내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노동자가정, 북한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하였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민 가족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국제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로 국내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이는 2000년 국제결혼건수가 11,605건이던 것이 2009년 33,300건으로 전체결혼건수의 약 11%에 이르며, 남한으로 유입되는 새터민도 총 18,339명에 이른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통일부, 2010). 다문화가정의 이러한 증가추세로 인해 최근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다문화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이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의 주제들은 학교생활적응의 문제(박수정, 최연실, 2009; 이수연, 2008; 이영주, 2007; 이은하, 2004), 언어발달과 의사소통 능력의 장애,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소외감, 학습결손, 자아정체감의 혼돈, 집단따돌림(설동훈 외, 2005; 조영달, 2006;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등이다. 또한, 2008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초등학생의 경우 한국인부모 초등학생에 비해 38배나 높은 미취학률(교육인적자원부, 2008)과 6배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였다(박인숙, 2009).

그러나 이와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도 있다. 다문화아동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생활전반에 만족하고 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08), 부모나 친구, 이웃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금명자 외, 2006). 심리·사회적 적응도 일반아동에 비해 비교적 양호할 뿐 아니라, 행동문제나 부적응 정도도 상대적으로 낮았고(노충래, 홍진주, 2006),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박윤경, 이소연, 2009).

한편, 김근영, 광금주 및 배소영(2009)은 2000년

이후 발표된 국내 다문화연구 중 학진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중 심리학적 주제에 관한 연구물을 따로 모아 개관한 결과, 한국인 통제집단을 설정하지 않은 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이나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을 비교한 연구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전경숙(2008)의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들 수 있다. 조사결과 다문화 학생이 한국인 부모 학생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고,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낮았다. 그러나 학교에 가기 싫다는 생각을 실제 실천으로 옮기는 비율 면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더 높았다.

또한 남윤주와 이숙(2009)은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물들이 주로 다문화아동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심리적 특성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인 스트레스 측면에서 전남지역 초등학교 다문화아동과 한국인 부모 아동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아동이 애착과 자아개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한국인 부모 아동이 학업과 교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꼈고, 경제 및 물리적 환경에서는 다문화아동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수인(2010)은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을 비교하면서 가족건강성에서 다문화아동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따돌림피해는 다문화아동이 유의미하게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단순한 실태조사 차원을 넘어서 심리적인 변인을 다루거나 한국인 아동들과 비교하는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그 수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두는 동시에 다문화아동에게 유용한 심리적인 변인들을 연구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 아동이 적응의 어려움을 갖는다는 주장과 적응에 어려움이 없거나 오히려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적응을 잘한다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들은 다문화 아동들이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모든 다문화 아동들이 똑같이 그 영향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적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그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보호요인(Compas, Hinden & Gerhardt, 1995)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Carr(1999)는 청소년에게 작용하는 보호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으로 구분하면서 개인적 요인에 내적 통제소재를 제시하였다. 내외통제성은 개인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개념이다. 자신의 행동 후에 따르는 결과가 자신이 한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라고 지각하는 경우를 내적 통제라고 하고, 우연이나 운명이 작용했다고 여길 때를 외적 통제라고 한다(Rotter, 1966).

이러한 내외통제성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애경(2001)은 내적 통제를 지닐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높고 삶에 적극적이라고 했다. 반면, 사건의 결과를 행운이나 과제난이도와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외적요인에 두는 사람은 스트레스, 무기력감, 좌절감, 불안, 우울 등에 취약하다고 했다. 민하영(200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외적통제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며, 이는 또래-소외의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믿어서 이러한 소외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민영과 김광웅(2011)도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통제소재가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에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통제소재가 대인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래관계에서 소외감과 집단따돌림이 문제가 된다는 여러 연구들(설동훈 외, 2005; 조영달, 2006;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아동들의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통제소재를 살펴본 국내연구는 아직까지 전무하다. 다문화아동들이 관계의 어려움을 어디에 귀인하느냐에 따라 향후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통제소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 또한 다양한 문제행동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완충시키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김애경, 2002). 사회적 지지란, 관계를 통해 긍정적 자원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말하며, 스트레스 경험수준을 감소시키고,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한미현, 1996). 또한, 특정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지 않은 개인의 경우도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Newman & Newman, 1995). 한국인부모 아동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아동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보였다(김윤경, 정문자, 2009; 소영원, 2006).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아동의 적응, 특히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꼽히고 있다(김기덕, 박민서, 2009; 이순미, 2010; 홍정미, 2008). 새터민 청소년만을 따로 연구한 이소래(1997)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삶의 적응에 유용하다고 하였다.

또 하나,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가족변인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민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더 밀접한 유대를 갖을수록 외부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서 보호되고, 여러 위기 상황을 보다 잘 극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Crosnoe, 2005). 국내 다문화아동의 적응에 있어서도 가족기능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은선경(2010)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으로 가족기능을 들고 있다. 즉, 가족의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의 자녀일수록 적응을 잘 한다. 김수인(2010)도 다문화아동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에는 부모 개인이 아닌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형태(2004)도 가족의 역할이 역기능적일 때 적응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인 부모아동의 경우도 가족의 건강성이 교사와 친구관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이혜경, 2008).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부모아동을 비교집단으로 두고 다문화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 및 가족기능을 상호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통제 소재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기능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 방법

연구대상

연구자는 연구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고려하였다. 표집에 있어서 외국인 부모 가정뿐 아니라 새터민 가정의 자녀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어머니 국적을 포함하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다문화아동 대상자들은 부산, 양산, 충남, 충북 4개 지역 37개 초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에서 6학년 104명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명을 제외한 103명이다. 그리고 다문화아동과 비교하기 위해 4개 초등학교 444명의 한국인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하였으며, 그 중 부산지역 소재의 1개 초등학교 한국인부모 학생 120명을 표집하여 불성실하게 응답한 5명을 제외한 115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비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모 출신국가

모 출신국가	빈도	%
중국	12	11.6
일본	34	33.0
베트남	10	9.7
태국	2	1.9
캄보디아	1	1.0
필리핀	25	24.3
새터민	16	15.5
과테말라	2	1.9
페루	1	1.0
합계	103	100.0

교분석 시에는 사례수가 비슷해야 하므로, 사례수를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1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우선, 4개 초등학교 중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골고루 설문을 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다음으로 성비의 편포가 적은 학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경제수준이 매우 높거나 또는 매우 낮은 지역의 학교는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자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교사들에게 연구를 설명하고 설문을 부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문항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경우 담당교사가 의미를 설명해 주도록 하였다. 설문에 협조해 준 교사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연구대상의 모 출신국가는 표 1과 같으며, 연구대상에 대한 성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성별 분포

구분	남자 n(%)	여자 n(%)	전체 n(%)
다문화	56(54.4%)	47(45.6%)	103(100.0%)
한국인부모	61(53.0%)	54(47.0%)	115(100.0%)
전체	117(53.7%)	101(46.3%)	218(100.0%)

표 3. 연구대상의 학년 분포

구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다문화	39(37.9%)	24(23.3%)	24(23.3%)	16(15.5%)	103(100.0%)
한국인부모	29(25.2%)	29(25.2%)	29(25.2%)	28(24.3%)	115(100.0%)
전체	68(31.2%)	53(24.3%)	53(24.3%)	44(20.2%)	218(100.0%)

표 4. 연구대상의 경제수준

구분	경제수준					전체
	매우잘산다	잘산다	보통이다	못산다	매우못산다	
다문화	5(4.9%)	27(26.2%)	57(55.3%)	11(10.7%)	3(2.9%)	103(100.0%)
일반	19(16.5%)	46(40.0%)	45(39.1%)	5(4.3%)	0(0.0%)	115(100.0%)
전체	24(11.0%)	73(33.5%)	102(46.8%)	16(7.3%)	3(1.4%)	218(100.0%)

표 3은 학년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며, 표 4는 연구대상의 경제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측정도구

내·외 통제소재

민하영(1998)이 Nowicki와 Strickland(1973)의 아동용 통제소재 척도(Locus of Control Scale for Children)와 Wellborn, Conell과 Skinner(1989)의 학생용 통제력 지각 질문지(SPCQ : The Student Perception of Control)를 바탕으로 개발한 내·외 통제소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답할 수 있게 되어있으며, 내적통제문항 10개, 외적통제문항 10개의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통제문항의 경우 역채점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내적통제성향이 큰 것을 의미한다. 민하영(1998)이 보고한 내적통제문항의 신뢰도는 .77, 외적통제문항의 신뢰도는 .73이며 전체 신뢰도는 .79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통제문항은 .77, 외적통제문항은 .75, 전체 신뢰도는 .75였다.

사회적 지지 척도

Dubow와 Ullman(1989)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 SSAS)와 SAB(Scales of Available Behavior)를 한미현(1996)이 수정·보완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척도의 하위척도는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세 가지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척도별로 8문항씩 총 24문항이다. 이 척도는 실제로 주어진 지지보다는 개인이 지각한 지지를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약간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한미현(1996)이 보고한 신뢰도는 친구지지 .89, 가족지지 .89, 교사지지 .88, 전체 신뢰도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친구지지 .88, 가족지지 .89, 교사지지 .88, 전체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척도

Olson, Portner와 Lavee(1985)가 개발한 FACES-III(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를 전귀연(1993)이 번안하고 김미애(1997)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 간의 심리적 유대를 나타내는 응집성

10문항, 가족이 내·외적인 필요와 목적에 따라 가족의 규칙, 역할 및 전략을 얼마나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가족 적응성 10문항의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가족 응집성 .88, 가족 적응성 .77, 전체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 비교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 통제소재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t* 분석을 실시하기에 두 집단의 변량의 동등성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내·외적 통제소재 차이 검증

변인	다문화 아동 (n=103)		한국인부모 아동 (n=115)		<i>t</i>
	<i>M</i>	<i>SD</i>	<i>M</i>	<i>SD</i>	
내적 통제소재	3.09	.49	3.26	.46	-2.44*
외적 통제소재	2.35	.55	2.02	.47	4.64***

* *p*<.05, *** *p*<.001

내적 통제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09, 한국인부모 아동은 3.26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44, *p*<.05). 외적

통제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2.35, 한국인부모 아동은 2.02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4.64, *p*<.001). 즉, 내적통제소재는 다문화 아동보다 한국인부모 아동이 많이 사용하였으며, 외적 통제소재는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사회적 지지 비교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사회적 지지에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집단의 변량의 동등성 확인한 결과,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교사지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에서 동등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사회적 지지 차이 검증

변인	다문화 아동 (n=103)		한국인부모 아동 (n=115)		<i>t</i>
	<i>M</i>	<i>SD</i>	<i>M</i>	<i>SD</i>	
사회적 지지 전체	3.70	.60	3.81	.66	-1.15
친구지지	3.61	.79	3.78	.81	-1.54
가족지지	3.97	.79	4.33	.76	-3.41**
교사지지	3.55	.71	3.35	.95	1.68

** *p*<.01

표 6에 제시된 사회적 지지의 *t* 값은 변량의 동등성이 가정되지 않았을 때의 수정된 *t* 값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 전체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70, 한국인부모 아동은 3.81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15, *p*>.05). 사회적 지지 하위요인 친구지지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61, 한국인부모 아동은 3.78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54, *p*>.05). 가족지지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97, 한국인부모 아동은 4.33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41, p<.01$). 교사지지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55, 한국인부모 아동은 3.35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t=1.68, p>.05$). 즉,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 비교에서는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지지를 제외한 다른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없었다.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기능 비교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기능에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두 집단의 변량의 동등성 확인한 결과, 변량의 동등성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의 가족기능 차이 검증

변인	다문화 아동 ($n=103$)		한국인부모 아동 ($n=115$)		t
	M	SD	M	SD	
가족기능 전체	3.36	.68	3.74	.74	-3.79***
응집성	3.51	.77	3.88	.81	-3.89***
적응성	3.22	.67	3.59	.71	-3.30**

** $p<.01$, *** $p<.001$

가족기능 전체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36, 한국인부모 아동은 3.74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79, p<.001$). 가족기능 하위요인 응집성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51, 한국인부모 아동은 3.88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89, p<.001$). 적응성에서 다문화 아동의 평균은 3.22, 한국인부모 아동은 3.59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30, p<.01$). 즉,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 비교에서는 한

국인부모아동의 가족기능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루어졌던 점들을 고려하여 다문화아동의 적응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내·외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그리고 가족기능 변인을 살펴보고, 한국인부모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두어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전국 4개 지역 37개 초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에서 6학년 다문화가정 아동 103명과 한국인부모 아동 115명을 합한 총 218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 통제소재에서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내적 통제에서는 다문화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외적 통제에서는 다문화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국내 다문화아동의 내외통제소재가 대인관계나 적응에 미치는 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한국인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내적통제성을 보이는 한국인부모 아동은 타인과 친교를 추구하고, 친구관계에서 보다 친애적이고 수용적이었으며(이미진, 2005), 책임감 있는 대인관계 행동을 보였다(김영례, 1981). 외적통제를 하는 한국인부모 아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기비하적이 되며(김영례, 1981),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적대적, 공격적 성향이 높아서 부적응 행동을 유발하였다(박영신, 김의철, 1998).

본 연구결과와 한국인부모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아동들이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보이는 행동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즉, 다문화아동이 겪는 집단따돌림이나 차별의 이유가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 습관적인 행동 등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어머니가 외국인이어서 또는 피부색이나 생김새 등이

달라서라는 외적인 이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이소희, 최운선, 2008; 전경숙, 2008; 조영달, 2006),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나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어 효과적으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가 더욱 힘들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본다. 이는 다문화아동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서 성장발달에 역기능을 보인다는 Cohen(1982)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다문화아동이 외적통제에서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다문화아동들이 자기비하적이 되고 부적응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나 우울(김애경, 2001)등에 대한 심리상담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아동들이 자신이 겪는 여러 어려움이나 제약에 대해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적 통제를 하도록 조력하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개입은 또래-소외의 상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서 이러한 소외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나 노력을 더욱 많이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 사회적 지지 전체에서 다문화 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 모두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를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친척들이나, 사회복지 관련 기관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하다는 주장(박윤숙, 윤인진, 2007; 설동훈 등, 2005; 조영달, 2006)과는 맥을 달리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친구지지와 교사지지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다문화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고, 학교현장에서 다문화학생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교사들이 다문화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교육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사뭇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다

문화아동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가족지지가 교사지지나 친구지지에 비해 가장 높았던 점은 정현영(2006)과 안은미(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줬던 가족 지지 하위요인에서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결과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다문화아동들에게 사회적 지지 중 가족지지가 가장 높게 인식되고는 있으나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서는 유의미하게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가족의 지지를 고취하여서 다문화아동을 조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가족기능 전체에서 다문화 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또한,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인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에서 다문화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건강성에서 다문화아동이 한국인부모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김수인(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다문화아동이 집안 분위기를 더욱 화목하게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가출충동도 한국인부모 아동에 비해 낮았다고 한 전경숙(2008)의 연구와는 맥을 달리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아동의 가족기능이 유의미하게 낮게 나온 것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부부간 불화가 많고, 외국인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다(설동훈 등 2005, 조영달, 2006)는 것과 연관된다. 강기정(2009)도 외국인 어머니의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도는 높은 반면,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와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 수행에 갈등을 경험한다고 했다. 이처럼 다문화아동의 적응에 가족변인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다문화가정은 여러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주로 외국인 어머니의 언어교육,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 법률상담, 의료상담 등에 집중되어 있다. 다문화아동이나 한국인 남편이나 시부모 등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가족생애주기와 가족유형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여서 구성원 각각에 대한 지원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박정윤, 2009) 따라서 다문화가족 전체를 지원의 단위로 여겨서 다문화아동이 가족 내에서 심리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도전이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성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전국의 다문화 아동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를 진행할 때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특성상 전국 각 학교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구 대상을 선정에 임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가족기능을 살펴보면 연구대상 부모의 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에 대한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아동에게 의미가 있는 심리적인 변인들이라고 판단되는 내·외통제소재, 사회적 지지, 가족기능이 한국인부모 아동과 차이를 보이는지 단순 집단 비교만을 했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이들 변인들이 다문화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이나, 심리적 안녕감, 진로발달, 교우관계 등 다문화아동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들에 실제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적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다문화아동과 한국인부모 아동 집단을 하나의 잣대로 비교하는 것이 한계가 될 수 있다. 한국인부모 아동의 경우 외적통제성이 부정적인 행동과 연관된다는 결과들은 여럿 있지만, 다문화아동의 경우 선행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한국인부모 아동과 같이 해석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연구대상에 새터민 아동을 포함하였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미흡했던 한국인부모 아동을 비교집단으로 두고, 단순한 실태조사 차원을 넘어서 이들에게 유용한 심리적인

변인을 연구함으로써 다문화아동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기정 (2009). 다문화가족 모의 부모역량강화를 위한 부모코칭 경험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111-125.
- 공윤정 (2008). 부모의 지지, 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아동의 진로발달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1(3), 223-242.
- 곽준규, 구만호 (2000). 초등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자아개념 및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37-152.
- 교육인적자원부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재학현황**. 금명자, 이영선, 김수리, 손재환, 이현숙 (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청소년)연구: 사회적응실태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경자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기덕, 박민서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48(1), 97-121.
- 김미애 (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가족체계 특성과 청소년의 성격특성**.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인 (2010).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애경 (2001). 내외통제성, 가족의 지지, 가족의 응집 및 적응성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85-196.
-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

- 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6(3), 31-50.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 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51-372.
- 김영례 (1981). **내외준거성과 대인관계행동간의 상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경, 정문자 (2009). 학교폭력 피해아동의 내외통제성과 사회적 지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7(8), 1-11.
- 김현주, 이혜경 (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가족과 문화**, 23(1), 77-104.
- 김형태 (2004).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유형에 관한 통합적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형태 (2008).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1), 49-73.
- 김혜미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 남윤주, 이숙(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 생활과학학회지**, 20(3), 357-367.
-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22, 127- 158.
- 민하영 (1998).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내외 통제소재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하영 (2002). 학령기 아동의 내외통제소재 및 또래-소외 상황에서의 대처행동과 외로움. **아동학회지**, 23(3), 51-63.
- 박수정, 최연실 (2009).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521- 2538.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영신, 김의철(1998). 한국인의 성공양식과 귀인양식. **교육심리연구**, 12(2), 51-84.
- 박윤경, 이소연 (2009). 다문화가정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집단간 차이와 집단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 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박인숙 (2009). 탈북학생 이해를 통한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2009 다문화가정자녀교육 강사요원연수**. 경남: 경상남도 교육청.
- 박정운(20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서비스 :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컨텐츠연구**, 2, 31-62.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소영원 (2006).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은미 (2007). **농어촌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순미 (2007).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가족생활행복에 작용하는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4), 559-576.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경남 (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내외통제소재와 또래괴롭힘이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6, 317-331.
- 이미진 (2005).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통제소재 및 우울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민영, 김광웅 (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행

- 동통제특성과 내외통제소재 및 친구 간 갈등 해결전략.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 최운선(2008). 국제결혼자녀의 문화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3(3), 163-185.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순미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개념,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영주 (2007).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83- 105.
- 이은하 (2004).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제5회 이주 노동자 정책세미나**. 서울: 성동외국인 근로자센터.
- 이혜경 (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영순, 이종구 (2006). 초등학생의 내외통제와 창의성.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학,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68-269.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전귀연 (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다문화 청소년이해론**. 서울: 양서원.
- 정현영 (200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한익, 이현아 (2009).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 있어서 내외통제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1), 1-23.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성의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성동, 박은혜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123-145.
-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 한국교육개발원 (2008).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연구: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문제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정미 (2008).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Bulkoski, W. M. & Hoza, B.(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Carr, A. (1999). *The handbook of child and adolescent clinical psychology: A contextual approach*. London: Routledge.
- Cohen, M. (1982). Same or different? A problem of identity in cross-cultural marriage. *Journal of Family Therapy*, 4, 177-199.
- Compas, B. E., Hinden, B. R., & Gerhardt, C. A. (1995). Adolescent development : pathway and processes of risk and resili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265-293.
- Crosnoe, R. (2005). Double disadvantage or signs of resilience? The elementary school contexts children from mexican immigrant familie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 Journal*, 42(2), 269-303.
- Dubow, E. F.,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52-64.
- Garcia, N. (2001).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 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Newman, B. M., & Newman, P. R. (1995). *Development Through Life : A Psychological Approach*(6th ed.). Pacific Grove, CA: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Family Adatability and Cohesion Evolution Scales) III. In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sen, M. and Wilson, M. (Eds.). *Family Inven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41.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33(1), 300-303.
- Williams, C. I., & Berry, J. W. (1991). Primary prevention of acculturative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15, 320-330.
- 원 고 접 수 일 : 2011. 08. 31.
수정원고접수일 : 2011. 10. 26.
계 재 결 정 일 : 2011. 11. 11.

Differences in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ing Betwee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Children of Korea-Parents Family

Byun, Eun-Joo

Kim, Hong-Seok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ifferences in locus of control,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ing betwee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and children of Korean-Parents family who reside in South Korea.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218 elementary school students (multi-cultural family 103; Korean-Parents family 115). Results of data analysis by t-test indicate that children with multicultural parents were lower in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higher in external locus of control. Children with multicultural parents were lower in family support, family coherence, and adaptability than those with Korean par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lementary school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be in need of mor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from familial environment. Clin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Multi-Cultural Children, Locus of Control, Social Support, Family Functionings